

대림 3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지휘: 이유니스

설교: 최요한 신부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보혈조력: 체베드로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 †입당성가 650장 다 함 께
-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 †기원송가 ..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1독서 이사 61:1-4, 8-11 말 은 이
성 시 시편 126편 다 함 께



- 1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 주시던날,
○ 꿈이든가 |생시든-이가!
- 2 그 날 우리의 입에서는 함박 같은 웃음 |터지고
○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이다.
- 3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습니다
○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이가.
- 4 주여, 저 네겟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 |오소서.
- 5 눈물을 흘리며 씨뿌리리는자,
○ 기뻐하며 거두어 들이리라.
- 6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자,
○ 평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1데살 5:16-24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요한 1:6-8, 19-28 말 은 이

설교 최요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 †봉헌성가 570장 다 함 께
-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 거룩하시다 103쪽(D곡) 다 함 께
-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 하느님의 어린양 ... 106쪽(D곡) 다 함 께
- 성체성가 602장 다 함 께
- †영성체후기도 3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신자 회 장

파송예식

- †축복기도 32쪽 집 전 자
- †파송성가 136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2월 17일)	다음 주일(12월 24일)
1독서	이숙영	김소정
2독서	홍종분	권용준
대 도	최용욱	생 략
다음주일 전례독서	사무하 7:1-11, 16 시편 89 로마 16:25-27 루가 1:26-38	
성 가	139(1-3) 444 646 139(4-7)	
복 사	정선우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4조> 유정훈 김승현 이진봉 김영란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12월 17일 대림 3주일(장미주일) · 나해 · 장미색

제27-51호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요한 1:5).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제 아무리 이 땅의 어둠이 칠흑 같을지라도 빛을 이긴 적이 없으며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말씀이며, 세례자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고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 이사야가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세례자 요한은 이 말씀을 예비하는 예언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소리’는 인간이 되신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소리칩니다. 인간의 소리와 말의 근원과 목적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소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공명(共鳴)할 때 참된 의미를 획득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공명을 이룸으로써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사야 예언자의 “소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구약독서가 분명히 들려줍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 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라.”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자의 소리는, “야훼의 영” 즉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이며, 해방과 자유, 위로와 희망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로도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성령이 주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권면합니다. ‘언제나 기뻐하는 삶’은 ‘성령의 불’과 ‘성령의 감동’이라는 은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간의 기쁨은, 재력이나 건강이나 행운 같은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언자 이사야, 사도 바울로, 세례자 요한 모두 성령의 힘을 입어, 세상의 온갖 어둠을 이기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요즘이지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밝히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언자처럼 그 빛을 드러내고, 세례자처럼 그 빛을 증언하며, 사도처럼 그 빛을 서로 권면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장미주일 - 심으로 미리 맛보는 기쁨



'장미주일'로 부르는 주일이 교회력에 두 번 있습니다.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일입니다. '장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례 색깔도 장미색을 씁니다. 장미는 그 화려한 색깔과 짙은 향기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필 왜 참회와 절제의 절기 중간에 이러한 화려한 기쁨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대림절기와 사순절기의 절제 생활이 느슨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금육, 금육, 금식 등 절제 생활이 엄격했습니다. 지루한 절제 시간 가운데 잠시 휴식을 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전통에서 보면, 사순 4주일에는 미사 입당송 '즐거워하라(Laetare)'를 불렀고, 대림 3주일에는 '기뻐하라(Gaudete), 주님 안에서'를 불렀습니다.

이 두 주일에 '장미'를 덧붙인 연유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지배자 신들은 장미를 엮어 화관을 썼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배자들의 신화를 뒤집었습니다. 장미를 억압당하고 박해받은 순교자의 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도 가시 찢리는 고난이 있었으나, 그 신앙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상징은 백합과 장미였습니다. 장미의 가시는 예수를 잃은 어머니 마리아의 '심장을 아프게 찌르리라'는 시므온의 예언과 들어맞았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형태를 단칼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혹독한 신앙의 수련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신앙인의 연약함을 향한 너그러운 배려도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 인간 내면의 어둠 속에서 험벗은 외로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훈련인가 하면, 기쁨을 향한 희망과 감각을 잊지 말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전례는 이처럼 여러 뜻이 겹쳐져 서로 모순되듯이 존재하고 관계하면서 신앙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하느님을 설렘과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합시다. 장미색처럼 환하게.

이번 주간 외울 말씀 8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교회소식

성탄 축하 일정

* 12월 24일(주일)

대림4주일 성찬례: 오전 11시(세례성사)

성탄 전야 행사: 오후 5:00 케이크 만들기

오후 6:00 저녁 식사

오후 7:00 성탄 축하의 밤

오후 9:00 성탄 밤 성찬례

* 12월 25일(월)

오전 11시 - 성탄 대축일 성찬례

■ 전례와 사목

◆ 대림 3주일 장미주일

교회는 대림 3주일을 '장미주일'로 부르며, 아기 예수님 오심의 기쁨을 노래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복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대림의 신앙을 함께 마련합시다.

◆ 대림 4주일 세례성사

다음 주일(12월 24일) 오전 11시 성찬례 중 세례성사(유아·성인)가 있습니다.

예비자 : 김훈나, 장태현, 장재현, 이지안

■ 알림

◆ 대림절 신앙 특강

오늘(17일) 오후 1시 / 성전

강사 : 최성모 요한 신부(인천나눔의집 원장사제)

제목 : 그리스도인의 기억법

* 인천 나눔의 집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 어린이교회 예배 (오늘)

매월 셋째 주일에는 어린이 교회학교가 열립니다.

◆ 성령 세미나 성료

7주간의 '성령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회복과 감사와 간증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 교회위원회 워크숍 성료

2024년도 선교와 사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왕수(17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640,000원
김준우/조장은 류한신/이민녀 박종례 유군상 이진봉/김영란 최용욱/윤희진

■ 주일헌금 250,000원
고미순 류한신 백옥경 신동홍 유군상 유정훈 이범희 이원주 이윤식 임해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조준행 지병애 지영주 최순덕 최용준 한명숙 허예영

■ 주일학교 이하린 2,000원

■ 감사헌금 230,000원
김소라 류지민 이요한 이동우, 이서현(건진) 차준섭/김승숙(범사)

■ 특별 목적헌금 530,000원
유군상(나눔의 집) 유군상, 최미혜(늘푸른) 이명철(성탄)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 전례독서 (12월 18일~23일 / 대림 3주간)

	독서	복음
18일(월)	예레 23:5-8	마태 1:18-24
19일(화)	판관 13:2-7, 24-25	루가 1:5-25
20일(수)	1고린 3:5-11	요한 4:31-38
21일(목)	스바 3:14-18	루가 1:39-45
22일(금)	2고린 6:6-10	마태 8:18-22
23일(토)	1베드 4:7-11	마태 16:24-27

※ 기도해 주세요 ※

◆ 세례성사 예비자

김훈나 이지안 장재현 장태현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 이요한 김훈나